

‘자연 속 심’...몸과 마음 달래줄 전남으로~

전남도, 백운산자연휴양림·고하도해상데크 등 4곳 추천 산림 치유·수중 노르딕 워킹·동굴 탐방 등 프로그램 다양

전남도가 올해 한국관광공사 관광트렌드 키워드인 ‘심’을 주제로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목포 고하도해상데크, 완도 해양치유센터,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이달의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22면〉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야영장, 목공예문화체험장을 갖춘 산림치유 휴양림이다.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심어진 숲길을 거닐며 싱그러운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백백한 나무 사이에 숙박시설이 조성돼 숲속을

즐거기에 제격이다. 다양한 산림치유 체험 프로그램 명상·요가실, 족욕장, 아로마 테라피실, 피톤치드 카페, 일광욕장을 이용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목포 고하도 해상데크는 해식에 절경과 어우러진 목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색 산책로로 유명하다. 이곳 산책로는 2개 코스로 이뤄졌다. 용머리담방호(931m)로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과 거북선 조형물을 볼 수 있고, 오른쪽 해안동굴탐방로(768m)로 가면 태평양전쟁 때 만들어진 해

안동굴을 둘러보며 역사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고하도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다도해 풍경을 감상하면서 일상에서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에 몸을 담그며 신체의 치유를 돕는 프랑스 전통 미용 기법 ‘팔라소 테라피’ 체험시설이 마련된 곳이다. 16개 해양 치유 요법 시설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지도사와 함께 수중 노르딕 워킹, 공기 거품 마사지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3만 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전남의 힐링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산림자원과 의료를 결합한 국내 유일 통합의료기반 치유시설이다. 억불산과 어우러진 특량만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온열점

질, 한약 족욕, 한약 두피케어, 아로마 마사지와 함께 장흥의 청대전을 이용한 ‘차훈 명상’, 장흥 우드랜드 편백 숲 산책 등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탐진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탐진강의 청정 수자원을 테마로 ‘워터락 풀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야외풀장, 뗏목, 카누, 우든보트, 수중자전거, 배나보트, 플라이보트 등 다양한 수상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도는 산림과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며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전남의 ‘심’이 있는 여행지’에서 몸과 마음이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대표 디저트 개발 8월 2일까지 응모

광주시가 천안 호두과자, 경주 심원빵, 통영 꿀빵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디저트를 개발한다.

광주시와 광주 관광공사는 11일 “길거리 음식, 음료, 선물용 간식 등 광주 대표 관광 디저트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 제작에서 포장,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 상품화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누구나 8월 2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개발 지원금, 김치 축제 등 지역 축제와 관광 홍보 팝업 스토어 이벤트 등에 참여 기회를 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관광공사 누리집(www.gjto.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두메습지’ 보전 주민 토론회
광주 북구는 11일 행복어울림센터 강당에서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최초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을 기념하기 위한 평두메습지 보호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총력

실무협의체 회의서 용역 결과 공유 우수한 연구 기반 등 유치전략 제시

광주시가 우수한 연구·산업 기반을 강점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집중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는 이날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실무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당위성 연구 용역 결과 등을 공유했다.

협의체는 광주시, 치과의사회, 치과 관련 대학(원), 병원, 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돼 지난 4월부터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 특화전략 마련 등에 힘써왔다.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우수한 연구 기반, 풍부한 산업 기반, 디지털 전환 기반(인공지능 인프라), 광주시 정책 등을 설립 타당성 근거로 제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2012년부터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전국 11개 치과대학(원) 중 2 곳을 보유해 기반도 탄탄하다. 미래 치과 산업에 활용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기반 시설도 풍부하다고 광주시는 내세웠다.

광주시는 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유치 전략을 토대로 중앙 부처를 설득하고 유치위원회 구성, 세미나 개최 등으로 여론도 조성하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분야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설립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최초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수한 치의학 연구·산업 기반 시설을 가진 광주시에 설립돼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과반 표 못 넘어 재선거...광주시의회 원 구성 파행길로

명진 교문위원장 후보 23표 중 11표 16일 재선거...또 단독 입후보 촌극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자체적으로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를 정리해 각 상임위원회에 단독 출마했지만 대다수 위원장 후보가 압도적 민주당 의원의 비율 속에서도 간신히 과반을 넘기는 수모를 겪었다.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23명(국민의힘 1명·무소속 1명) 중 민주당이 21명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문화위원장(교문위원장) 후보는 1·2차 투표 모두 부결되면서 하반기 원구성이 무산됐다. 교문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명진 의원은 총 23표 중 11표·무효 7표·기권 5표를 받았고, 이어

진 2차 투표에서도 11표(무효 6표·기권 6표)를 득표해 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는 12표·무효 7표·기권 4표를 가깝스로 선출됐고,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후보,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후보도 14표를 받으며 자존심을 구긴 채 위원장에 당선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교문위원장 후보 접수를 마쳤고, 오는 16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재선거에 나서는 교문위원장 후보에 명진 의원이 또다시 단독 입후보하면서 ‘일당 독점의 폐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재투표인데도 다른 의원들은 전혀 후보로 나설 수 없고, 애초 정한 후보가 당선될 때까지 재선거를 치르는 촌극만 남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총 8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하는데 교문위원장이 뽑히

지 않으면서 이 일정도 꼬이게 됐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기존 16일에서 19일로 미뤄졌다.

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투표 결과는 의원 간 소통이 없던 점과 의장단의 정치력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 선임된 의장단이 적극적으로 소통 장구 같은 중재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데도 이 같은 분란이 생긴 것은 일당 독점 체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지역계가 관계자는 “광주시의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과반 이상 표를 겨우 얻거나 못 얻은 것은 지금까지 풀을 대로 풀은 민주당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준 꼴”이라며 “후보까지 자체적으로 선출해 본투표에 나섰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4명의 위원장 후보가 모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당 독점 체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도, 지역 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성과

김·쌀 음료 생산 기업 등 수출협약

전남도가 김, 화장품, 쌀 음료 등 생산 기업과 베트남 리호양그룹 간 상호협력을 하며 수출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기업의 베트남 시장 공략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수출협약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응우옌 티 호앙 베트남 리호양그룹 대표와, 정기호(유) 이스턴푸드 대표, 황재호 ㈜마린테크노 대표, 윤영식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도내 수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전남도의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영암 삼호음식의(유)이스턴푸드 김을, 순천 ㈜마린테크노는 먹는 플라센 및 화장품을,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라이스 티를 각각 수출키로 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전남의 5위 교역국이다. 석유화학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이나, 농수산물 수출 교역도 확대돼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김, 미역, 전복, 음료 등이다. 5월 말 현재 베트남 전남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1119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다.

전남도는 베트남 소비자에게 지역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원마트 하노이점을 시작으로 하노이(2)와 호치민, 다낭 등 4곳에 베트남 전남 해외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국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베트남은 아세안 최대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케이(K)-푸드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한류 열풍을 타고 전남 농수산물품과 화장품 등 수출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7월호

2024년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촌(村)캉스’ 로컬에서 여름휴가를

자연에 더 가까이, 캠핑하는 사람들

‘블루 웨케이션’ 로망 전남에서 실현하세요

하늘, 바다, 들녘 숨쉬며 체험 끝판왕 ‘촌캉스’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④

호남 남종화의 뿌리 소치(小癡) 허련(許鍊)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⑧
김인겸, 비엔날레 한국관 알린 주역이었다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⑤-신안 세계화석·광물박물관
지구의 역사 담은 돌들의 이야기

맛과 함께 파우어아트 여수 여행 바다체험 섬들레길 예술랜드

예향 초대석

우리 쪽빛 살려낸 무형문화재 염색장 정관채

“쪽빛으로 세계를 물들이고 싶습니다”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⑦

헤이문화기행-가우리 IN 바르셀로나 여행자들의 로망 ‘가우리투어’ 도시 곳곳, 예술 건축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찾아가서 사찰, 갯벌, 고인돌군 유적

호남의 누정 ⑩-광주 관수정

호르는 물 따라 마음도 흐르는 담백한 사유 갖는 소박한 거처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 주제전 200배 즐기기

임익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⑧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몸과 마음을 키워준 태 자리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칸은 영화계 마피아, 77년 역사를 읽어야 뚫을 수 있다